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OVERWEIGHT)

시대 63 – 리튬 선물 가격 급락과 배경

- 예상치 못한 리튬 선물 가격 급락
- 리튬 재고 상향 조정된 SMM의 새로운 통계와 중국 ESS 증설 브레이크 뉴스
- 성수기 리튬 수요와 선물가격 반등 확인 전까지 조심스러운 투자 환경

WHAT'S THE STORY?

들어가는 글: 시대(시장과의 대화) 예순 세 번째 주제는 9월 리튬 선물 가격의 급격한 조정의 배경과 그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8월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 랠리에 한 몫을 했던 것이 리튬 시장 내 낮은 재고 환경과 주요 중국 업체들의 광산 재가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ESS향 중심으로 리튬 수요가 여전히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리튬 선물 가격 반등이었습니다. 따라서 9월 들어 리튬 선물 가격 급락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이며 2차전지 산업 투자 관점에서 그 의미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리튬 선물 가격 9월 급락: 8월 이후 반등세를 보이던 탄산리튬 가격은 9월 2일 톤당 16만 위안을 찍고 9월 14일 현재 13.4만 위안으로 약 16% 하락함. Komis에서 제공하는 탄산리튬 가격으로는 동기간 3% 하락. 중국이 전세계 리튬 수요의 60~70%를 소비하는 최대 수입국이자 제련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 가격의 변동은 해외 공급사가 중국으로 보내는 CIF 수입 단가(Komis 인용 가격)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근 중국 내수 가격을 쫓는 Sunsirs의 선물 가격 변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9월 리튬 선물 가격 급락으로 두 가지 배경이 지목되고 있음. 하나는 중국 내 기업이 자 글로벌 선두권 비철금속 및 2차전지, 원자재 가격 평가 기관인 SMM(Shanghai Metals Market)이 9월 3일 자로 리튬 재고 방식을 변경하면서 주간 재고 데이터가 한 번에 9만~10만 톤이 증가한데 따름. 다른 하나는 중국의 ESS 배터리 증설 제동 가능성과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이 9월 생산 계획 축소 소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리튬 선물 가격 vs 리튬 현물 가격 최근 3개월 변동 비교

	선물 가격(위안/kg)*	현물 가격(달러/kg)**
06월 16일	170.0	21.61
09월 02일	160.0	20.45
09월 11일	135.0	19.85
09월 14일	134.7	19.85
가격 변동폭(9월 2일 ~ 14일)	-1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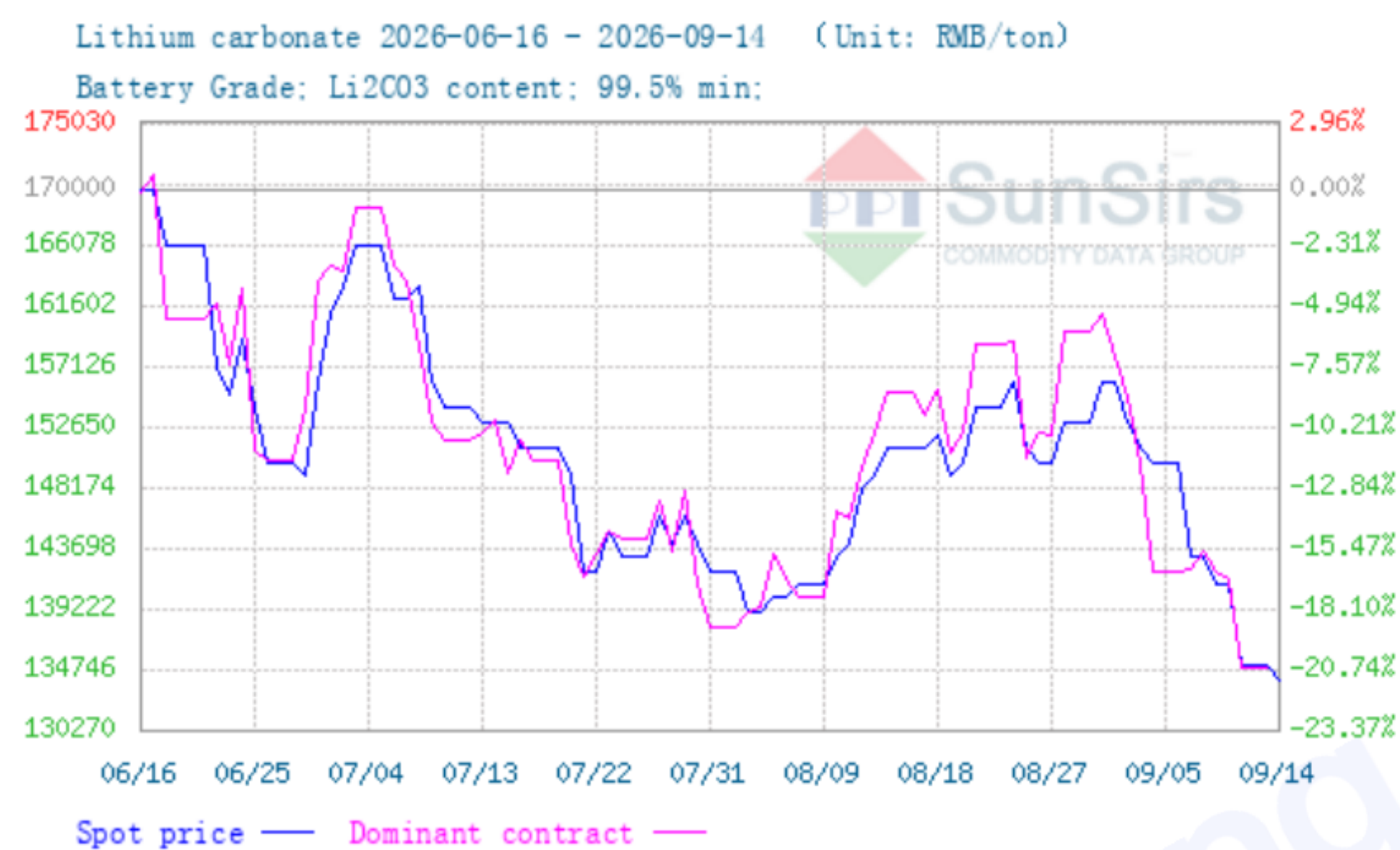
참고: *Sunsirs 데이터(중국 내수 인도조건(VAT 13% 포함) 동일하게 적용)

**Komis 데이터(CIF China기준, 글로벌 수입 가격. VAT 제외)

자료: SunSirs, Komi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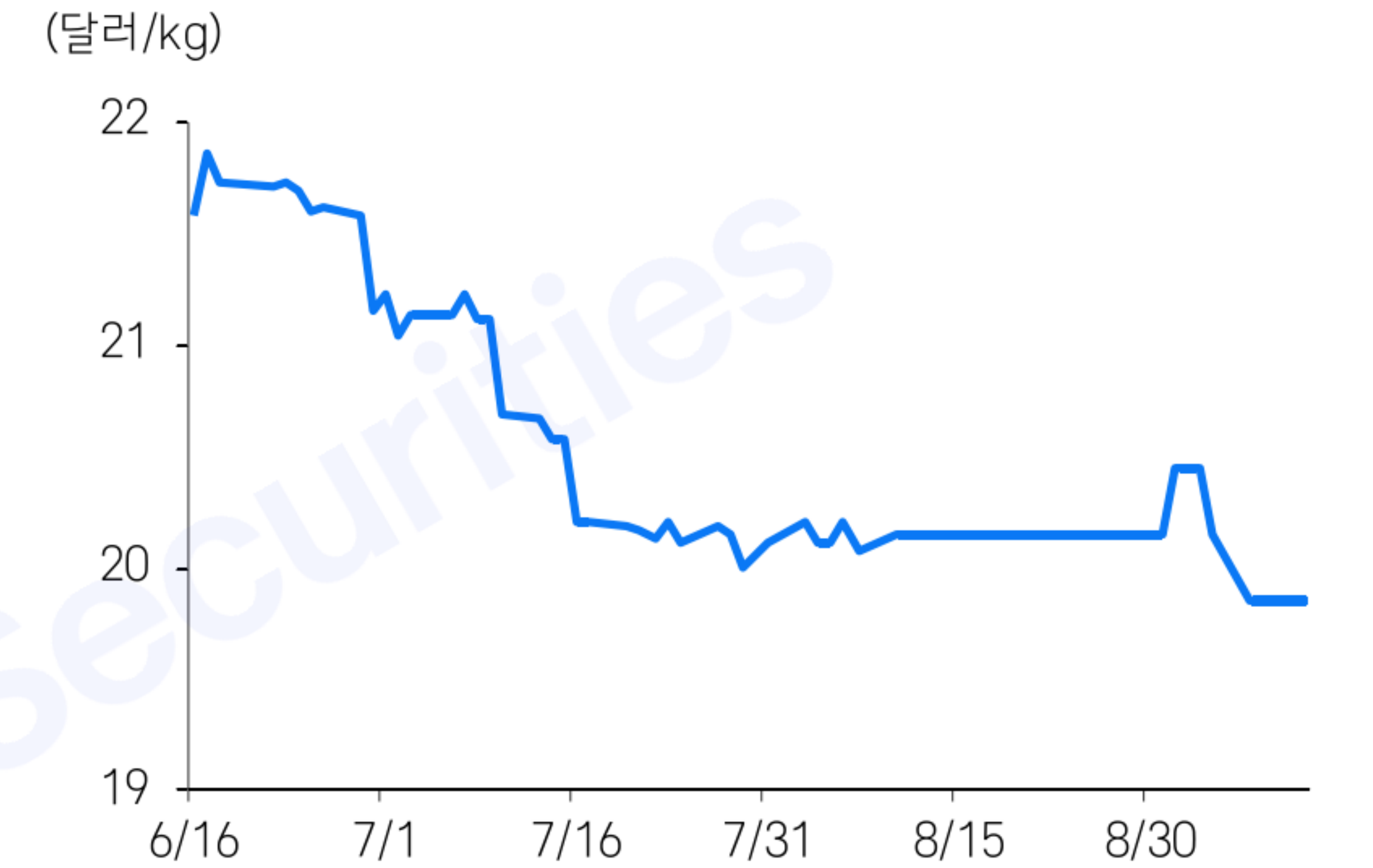
배경 1. 갑자기 10만톤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읽힌 SMM의 리튬 재고통계: SMM은 지난 3일 주간 탄산리튬 재고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9월 4일부터 새로운 통계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기존 7만 톤을 조금 웃돌던 주간 탄산리튬 재고는 16.9만 톤으로 상향 조정됨. 새로운 통계는 기존 데이터의 대표성이 낮다고 보고 조사 대상을 트레이더와 셀 업체를 포함한 다운스트림 업체들과 보크사이트 슬래그, 텅스텐 광석 부산물, 전해 알루미늄 폐기물 등에서 추출되는 리튬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SMM의 데이터 변경으로 재고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 선물 시장에서 투자 심리 약세를 유발했고, 가격 급락을 낳게 된 것. 리튬 선물 가격은 8월 한 달 동안 단기 급등하며 9월 초 톤당 16만 위안까지 오른 상황이다 보니 SMM의 통계 변경 이벤트가 결국 가격 약세론자들의 매도 포지션 구축에 빌미가 된 것.

리튬 선물 가격 추이



자료: SunSirs

리튬 현물 가격* 추이



참고: 99.5% min CIF China
자료: Komis

배경 2. 중국의 ESS 배터리 증설 브레이크 뉴스와 CATL 생산 축소 루머: 지난 11일 상하이 증권보 기사에 따르면,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계획 단계의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미 신고와 승인을 마치고 착공한 프로젝트는 무관해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승인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 이번 조치는 당국이 올해 초 제조업체들에게 과잉 캐파 가능성을 경고해온 뒤 나온 것. Caixin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체결된 신규 배터리 확장 프로젝트 계약이 총 2.6 TWh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2025년 총 생산량(1.7TWh)를 이미 넘어선 수준.

한편,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CATL이 9월 생산 계획을 5% 줄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수요 약세의 신호로 받아들임. 하지만 CATL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파악되지 않으며 CATL 이외의 배터리 업체들에서 생산 계획 축소 얘기는 나오지 않음.

한국 2차전지 산업 시사점 – 당분간 주가에 우호적이지 않은 리튬 가격 환경 감안: 하반기 시장 참가자들의 리튬 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인 재고 감소¹와 성수기 진입 등에 따른 견조한 가격 흐름이었음. 하지만 9월의 선물 가격 급락은 시장 참가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 다만, Gangfeng Lithium과 Tianqi Lithium의 최근 피드백은 성수기 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문도 차 있어 타이트하다고 평가하는 상황임. 따라서 선물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지적된 것들이 리튬 광산 업체들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 보임.

9월 중순 현 시점에서 리튬 선물 가격 급락을 지켜본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투자자들의 심리를 돌려세우며 선물 가격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전통적인 성수기인 9~10월에 실제 리튬 수요가 견재한지를 확인하고 싶을 것. 공교롭게도 한국 2차전지 산업은 최근 원/달러 환율 절상에 따른 펀더멘털 위축 가능성과 함께 리튬 가격 조정 우려가 겹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분간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 전략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임.

¹ Ganfeng Lithium과 Albemarle은 시장 리튬 재고가 3주 미만으로 낮다고 평가해 온 상황.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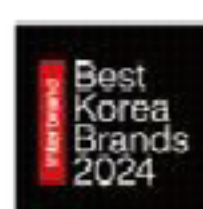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